



선후배 사랑으로 하나 된 서울 강서지회

이웃사랑 실천으로 희망 나누기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이웃을 돌아보는 일은 쉽지 않다. 관심은 있어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부진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후배 사이의 끈끈한 정을 차곡차곡 쌓아온 강서지회는 제과업계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임원진과 회원 사이의 단합으로 이웃사랑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함께 모인 자리에는 언제나 훈훈한 정이 오간다는 강서지회를 들여다본다.

취재_김진미 기자 · 사진_전문식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유학의 본거지 '양천향교'와 최고의 한의학 전문서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구암 허준박물관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사) 대한제과협회 강서지회는 지역 문화 사랑이 남 다르기로 소문났다.

강서지회는 양천지회와 한술밥을 먹다 16년 전에 독립을 이뤘다. 강서지회와 양천지회는 두 개의 다른 행정구역에 넓게 분포된 많은 회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리를 결정했다. 강서지회가 새 출발의 각오로 뚝뚝 뚫었던 90년대 초반에는 150여 업소를 웃도는 많은 회원수로 다른 지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줄어드는 회원 수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강서지회는 회원들의 협력과 임원들의 끊임없는 열정 덕분에 비로소 안정된 지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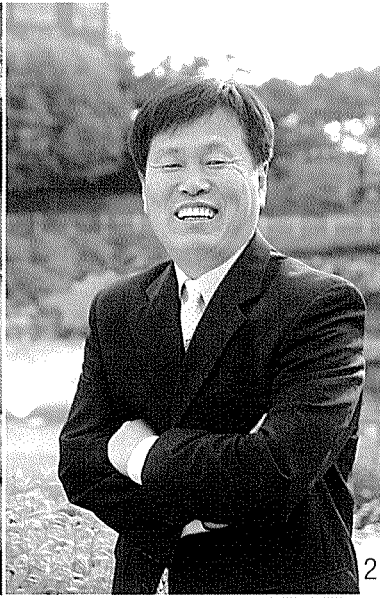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긍정적 사고

설립 초기의 강서지회는 따로 사무국장을 두지 않고서 몇몇 회원들의 열성만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의욕 있는 지회였다. 임원진이 선출된 다음에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층 조직력 있는 지회로 발전했다. 적극적으로 회원 수를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여러 협력업체와 손잡고 기술 세미나를 열

어 회원들의 기술향상에 앞장서기도 했다.

90년대 말 강서구 지역 개발과 함께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서 강서지회는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협회 살림이 어려워진 탓에 지난 2002년에는 많은 회원들이 사랑방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던 지회 사무실까지 평수를 좁혀 옮겨야 했다.

지회 사무실이 예전보다 작아졌다고 해서 강서지회 회원들의 마음까지 움츠러든 것은 아니었다. 강서지회 임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굳은 결심으로 과우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우선 흩어져 있는 회원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한 행사로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



좌 허준선생이 등의보감을 집필한 허가버위가 있었다는 구암공원에 협회와 회원이 하나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달려오는 강서지회 임원과 회원들이 모였다. 1 이사회가 있는 매달 둘째 수요일은 지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모으기와 회원업소들의 소식 나누기로 한동안 조용했던 강서지회 사무실이 활기를 되찾는다. 2 지난해 동안 전임 객성호 지회장을 목격히 보좌해 왔던 길경수 부지회장이 지난 4월 새로운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3 2004년 10월 친목을 다지며 열심히 함께 뛰었던 체육대회, 이웃사랑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교남소망의 집 방문, 자연을 배경으로 화합을 다졌던 야유회, 강서구 효 문화축제 때 강서지회가 주관했던 '케이크 만들기' 등 강서지회 회원들의 화기에애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들이 즐비한 알림판.

대화와 불우이웃돕기행사를 주관했다. 자연제과 점 수가 줄어들면서 회원들을 지회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거동락하며 협회에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강서지회 임원진들은 두 팔 걷고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예전보다 회원들의 수가 많이 줄어 지금은 85개 업소만이 강서지회에 속해 있다. 창립초기부터 협회일이라면 자기 일처럼 돌보던 선배들은 회원 수가 줄어들어 사기가 떨어진 후배들을 격려하며 지금도 협회 사무실을 찾는다고, 본인의 어려움보다 다른 회원을 생각해주는 선배들의 따뜻한 정을 받아온 강서지회 임원들은 공장에서 정성없이 일하다보면 지회 사무실로 향하기가 쉽지 않지만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강서지회 사무실로 향한다.

강서지회가 가장 바빠지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은 빵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날이다. 요즘 들어 인력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서지회는 "빵을 만들어 봉사를 나가려 해도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보니 갔다 줄 사람이 없는 형편"이다. 인력부족은 비단 강서지회만의 어려움이 아니다. 강서지회의 임원진과 회원들은 인

력부족에 대해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은 인력으로라도 자연제과점을 지켜나갈 방안을 찾는 쪽으로 힘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힘입어 얼마 전 강서지회의 몇몇 회원업소들은 고객 중심의 리모델링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희망을 나누는 지역사랑

강서지회 회원들의 지역사랑은 남다르다. 쌀 맛 좋기로 유명한 김포평야를 이웃하고 있는 강서지회는 요즘 들어서는 50대 제과점 대표라도 직접 공장에 뛰어들어야 할 정도로 형편이 빠듯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지만, 회원 수가 많았을 때에는 공장 직원들과 함께 가까운 농촌에 나가 봉사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요' 라는 지회 슬로건에서 강서지회의 따뜻한 이웃사랑이 담백 묻어난다. 2005년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5월 6일에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효(孝) 문화축제를 맞아 동네 어른들을 모셔놓고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강서지회는 매달 12개 업소가 돌아가며 8개 자선단체를 돕고 있다. 달마다 셋째 수요일을 빵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정하고 지역에 위치한 '교남소망의 집'에 벌써 3

년째 빵을 전해주고 있다.

올해 강서지회의 지역사랑 프로젝트는 지역 문화 사랑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강서지회는 9월 초 열리는 '허준축제'의 떡거리장터에 빵과 과자를 내세워 참가할 예정이며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허준박물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심은 있으나 몸소 실천하기 어려운 때 강서지회가 지역사회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애쓰는 임원진과 회원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더욱 탄탄히 자리잡은 강서지회는 지난 4월 선출된 신임 길경수 지회장을 맞아 변화의 기대와 포부로 가득 차있다. 기술교류를 위한 제품 세미나, 좀 더 싼 값에 재료를 구해 쓰는 공동구매, 강서지회의 생산현장을 생생 돌아가게 해줄 인력난 해결 등의 토의로 강서지회 사무실은 활기를 띤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쟁사회의 논리 속에서 자연제과점이 헤쳐 나가야 할 길은 평탄치 않아 보이지만 어려움을 함께 헤운 회원들이 힘을 모으면 못해낼 것 없다는 믿음에 강서지회의 미래는 언제나 밝음이다. ☺

자선단체
매달1한번
정성이담긴
어려운때일수록
도와주며 살